

“제2의 3.1운동이 필요하다”

한국기독교학회, ‘응답하라1919: 3.1정신과 교회의 미래’ 주제로 제47차 정기학술대회

다가오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기독교학회(회장 노영상)가 “응답하라1919: 3.1정신과 교회의 미래”를 주제로 제47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2일과 13일 양일 소망수양관에서 열린 학회에 대해 회장 노영상 박사는 “3.1운동의 핵심 정신을 오늘 여기에서 새롭게 구현해내는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학문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첫날 개회예배 설교는 창천교회 박춘화 감독이 맡아 “한국교회와 3.1운동”(민 9:1~5)이란 제목으로 전했다. 박춘화 감독의 창천교회는 그동안 ‘3.1운동 기념예배’로 한국교회를 섬겨왔고, 때문에 박 감독은 누구보다도 3.1운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목회자였다. 그는 3.1운동에 대해 “기독교가 앞장섰던 독립운동이요 민족 운동”이라 말하고, “기독교가 3.1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사회 기독교가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된 운동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박 감독은 “제2의 3.1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3.1정신으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당면해 고민하는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갈등 등을 극복하고, 다시 한 번 사회적 대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3.1정신을 이어 민족의 속원인 남북통일을 기원하고,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밝히고, “구원의 복음을 들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평화를 전하는 민족이 될 것이라

한국기독교학회 정기학술대회

주제: “응답하라 1919: 삼일정신과 교회의 미래”

일시: 2018년 10월 12일(금)-13일(토)
장소: 몽지암 소망수양관
주최: 한국기독교학회
후원: 한국연구재단 NRF



“3.1정신 다시 되새기며”

한국기독교학회가 ‘3.1운동’을 주제로 제47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창천교회 박춘화 감독은 개회예배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에 제2의 3.1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김규진 기자

확신 한다”고 했다.

주제 강사로는 괴수란 교수(에모리대)와 최재건 교수(연세대)가 나서서 각각 “동아시아 관점에서 바라본 탈식민 신학” “3.1정신과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주제로 강연을 전했다. 괴 교수는 3.1운동 100주년이 동아시아에서 탈식민신학(postcolonial theology)을 논의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하고, “동아시아가 세계 정치와 평화를 위한 중요한 지정학적

지역이 되면서,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시대 도전에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 교수는 기독교인의 3.1정신에 대해 “신앙의 확신을 행동화한 것”이라 설명하고, “자유와 정의는 기독교의 본질적 요소였어. 여기에선 선구자적 자세로 민족의 해방과 독립이란 절대 명제를 추구하고 군국주의를 물어내고 민족주의를 표방했다”고 했다. 또 “한국교회가 민족의 고난에 많은 피해를 당하며 동참했다”고 말하고, “해방 대한민국에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그들의 활동으로 교회 본질과 부합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립에 도 앞장섰다”고 했다.

이어 그는 “3.1운동 당시 전인구의 1% 남짓했던 한국교회가 사회적 공신력을 갖고 있었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공신력과 공공성은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그 이유 중 하나는 한국 기독교가

3.1운동 때의 모습과 정신을 잊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당시 기독교) 국가 사회,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3.1운동과 대한민국 건국과정에 기여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정신의 계승과 발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행사는 주제 강연과 개회예배, 주제 발표와 지정학적 주제 발표와 지정 주제 발표의 시간이 있었다. 또 신진

학자 소개와 간담회 시간도 마련됐으며, 특별히 개회예배 때는 소망교회(김지철)의 지원으로 소망학술상 시상식도 있었다. 이번 행사를 주제로 한 한국교회사 학회 김선영 박사와 한국신약학회 이승문 박사가 선정됐다. 각각 “마르틴 루터: 신학 개혁, 교회와 사회 개혁” “초기 그리스도교의 목회적 상황과 신학적 대응”을 주제로 논문을 썼다.

김규진 기자

제3세계 선교 새 패러다임 “대학 설립”

PAUA, 20일 교육선포럼 앞두고 기자간담회

12일 오전 11시 제3회 PAUA(사단법인 파우아교육협력재단) 교육 선교 포럼 기자간담회가 프레스 센터 19층에서 개최됐다. PAUA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제3세계에 선교 목적으로 세운 기독교 대학의 연합체다. 또 PAUA는 교육 선교 방향성을 모색하고, 제3세계에 세워진 대학교에 파송할 교수, 행정직원의 정보 공유를 위해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3회 PAUA 교육 선교 포럼은 10월 20일 삼일교회 3층 교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손봉호 PAUA 이사장 겸 전 서울대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하고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가 설교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이승주 탄자니아 연합대학 교수, 손봉호 이사장, 강성택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먼저 손봉호 이사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서구 선교사들이 한국에 연세대, 이화여대 등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를 지금보다 훨씬 후진국이 됐을 것”이라며 “그래서 교육선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제3세계에 세워진 대학교는 이제 경제 원조로만 복

류트에서 발표한 변영지수를 본적이 있는 텐데, 세계 1-1위 까지가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 개신교 전통을 가진 나라였다”고 전했다.

또 그는 “개신교 국가들이 변연한 이유는 바로 개신교 특성상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도록 강조하는 데 있다”며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루터는 “교육은 그 나라의 발전과 복음 전도에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생 한다”고 역설했다.

일례로 그는 “말라위에 간 적이 있는데 70년대 한국이 지금 말라위보다 더 가난했다”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DAC에 가입되어 있어 외국에 원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말라위 뿐 아니라 제3세계 국가 사람들은 한국이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한 비결이 바로 교육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교육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여 그는 “이제는 경제원조보다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 의식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한 패러다임이 됐다”며 “그 나라들이 적극 원하고 한국으로부터 배우길 원하는 것은 바로 교육”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때 기독교가 종력을 기울여 교육 선교에 이바지 하고, 복음과 국가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치 연세대, 이화여대가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공헌한 것처럼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그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제3세계에 세워진 대학교는 이제 경제 원조로만 복

류로 “그는 교육 자원이 우리나라만 큼 풍부한 나라는 없다”며 “또한 박사급 인력 중 크리스천 숫자가 우리나라만 큼 많은 나라도 없다”고 전했다. 또 그는 “인적 자원이 가장 필요한 시대에 한국 교회가 제3세계 인적 자원 양성에 힘을 쏟자”고 역설했다.

덧붙여 그는 “한국은 식민지 축취를 한 국가도 아니었기에, 제3세계 국가는 우리나라 교육자에 대해 상당히 열려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하여, 그는 “우리나라는 교육 선교에 있어 상당히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라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성택 PAUA 사무총장도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이화학당, 언더우드 학당은 초창기 조그마한 학교였고, 고아 같은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시작한 학교들 이었다”며 “이제는 이 학교들이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이끈 건실한 기독교 대학이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교육선교는 100년을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씨를 뿌려야 한다”며 “어려움 속에서 씨를 꾸준히 뿌리면 나중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제3세계에 해외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교는 재정, 학생모집, 교수 모

집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대학들이 창립 정체성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세속화되고 금방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이를 같이 고민하는 자리로 PAUA는 교육 선교 포럼을 매년 4회씩 개최할 예정”이라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크리스천 리더로 양성하고, 크리스천 리더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는가를 고민해보자 한다”고 전했다.

기자단 질문이 이어졌다. 첫 번째 질문으로 “우여 교수요원은 어떻게 파송하나”였다. 이에 강성택 사무총장은 “지금 까지 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한 이유는 바로 현재 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교수, 행정직원을 공개하고 알리는 역할”이라며 “컨퍼런스는 교육 선교의 방향 모색과 더불어 간접적으로 대학의 필요를 알리는 역할도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모든 대학의 필요를 아는 정보가 많이 부족한데, 대학이 요구하는 선교 자원에 관한 모든 정보가 결집되는 자리”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 선교사로서 교육선교의 한계”에 대한 질문이 강성택 사무총장에게 던졌다. 그는 현재 C국, Y대학에서 교수역할을 하고 있다. 질문에 그는 “아무래도 복음 전도에 제한을 받는 국가이기

에 선교는 항상 어렵다”며 “그러나 복음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과 행실을 통해 전파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무리 말로 복음을 잘 전도한다 해도, 교수가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 강의를 전한다면 복음은 임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하여, 그는 “그런 면에 있어 교육 선교는 효과적”이라며 “기독교에 적극적 편견이 있던 학생들도 교수들이 보여줬던 사랑을 기억하여, 졸업 후 어려운 사회생활로 인해 예수 믿는 경우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진정한 기독교 교수의 자세로 삶 속에서 학생들의 친구가 되고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정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파키스탄, 중국 등 기독교 박해가 심한 국가에서 교육선교를 통해 나라 발전과 더불어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손봉호 전 서울대 명예교수도 덧붙였다. 그는 “이를 교육학에서 힌 커리큘럼이라 부르는데, 가령 수학교사는 수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수학 교사의 인격을 학생들도 배우게 된다”며 “이런 면에서 교육선교는 기독교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국가에서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노형구 기자

“NAP 수정·삭제와 법무부 장관 사퇴를”

동반연, 과천 법무부 청사 앞 규탄 집회

양성평등 이념의 현행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편향된 단체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법무부 NAP)을 수립하면서 2017년 10월에 만들어 공청회까지 가졌던 초안을 아무런 설명이 없이 폐기하고, 각 정

부처가 추천한 단체는 참여시키지 않고, 법무부가 소위 코드가 맞는 단체만을 참여시켜, 목차부터 내용까지 대폭 수정된 NAP을 수립했다”면서 “목차와 내용이 대폭 수정된 NAP은 당연히 공청회를 다시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도 가지지 않고, 불과 6일(주말)을 제외하면 4일(주말)만 공개하여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동반연은 “NAP에는 양성평등 이념의 현행헌법과 법률을 정면 도전하는 성평등을 아무런 설명이 없이 폐기하고, 각 정

주장이 대폭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목소리들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해온 법무부 황희석 인권국장은 한국 기독교를 혐오집단, 적폐세력 등으로 규정하며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지적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겨레신문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짜뉴스의 생산자로 종교단체를 노골적으로 지목했다”며 “현행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성평등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해온 정부가 이를 반대하는 한국 기독교를 향하여 가짜뉴스 프레임 씨우기를 통해서 재갈을 물리려는 공작이 아닌가 심히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동반연은 “이번 법무부 국정감사를 통하여 절차상의 문제가 있

는 NAP의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또 “가짜뉴스 프레임 씨우기를 통해 반대 의견에 재갈을 물리면서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하여 심히 왜곡된 인식과 태도를 가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및 황희석 인권국장은 즉각 사퇴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나래 기자

“신학 공부 위해 인문학 선행 공부 필요해”

김남준 열린교회 담임목사, 웨스트민스터 컨퍼런스에서 밝혀



열린교회(김남준 목사)는 ‘제3회 웨스트민스터 컨퍼런스 인 코리아’를 개최했다. 최근 열린 교회 본당 예배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개혁주의 신학’이었다. 이날 특별 강연으로 김남준 열린교회 담임목사 겸 총신대 조교수는 ‘신학공부를 위한 인문학’이라는 주제를 전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이기도 한 그는 “인문학은 인간이 누구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지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신학 공부에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인문학의 어원을 살펴보며, 인문학의 존재 이유를 생각했다. 그는 “인문학은 자유 학제(aretes liberales)를 지시하며, 이는 고대 그리스에서 자유인

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당시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면 되었지만, 자유인 특히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회 구성요소를 결합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책임을 지닌 사람들”이라며 “이를 위해 그들은 자유롭고 창조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교육되어야 했다”고 전했다.

하여, 그는 “인문학의 가치는 인간을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데 있다”며 “교양 있는 사람이라 진리를 발견해 삶과 사회에 적용하며 나아가 관습과 기성의 사고체계를 깨뜨리는 창의적 기질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점에서 인문학 공부가 신학에 어떤 유익을 줄까? 그는 “성경을 통해 계시된 믿음의 대의는 양보할 수 없는 진리”라며 “그러나 어떤 분야의 학문에 종사하든 인문학적 훈련은 편견과 애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사유를 전진시켜 나가 사상을 통합하여 소통할 수 있게 해준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그는 “인문학적 사고는 의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진리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인 사고를 배양해 준다”며 “눈에 보이는 현상의 배후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준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당시로마 카톨릭의 공로주의를 부수고 오직은 혔, 오직믿음, 오직성경을 주장한 운동이었다. 여기서부터 카톨릭의 교황권이 무너졌고, 개인의 성경 접근권이 용이해져 금속활자가 발전됐다. 하여, 정보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근대 계몽주의 태동을 용이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교황의 정치적 입지 악화로 베스탈란조야이 이끈 근대 주권 국가의 탄생까지 이어지며, 근대의 시작은 루터의 종교 개혁에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인문학은 그런 의미에서 신학이 성경적 진리가 아닌 비 진리적 관습을 부수고 하나님에 의도하지 않으신 인간에 대한 속박들로부터 벗어나, 그리

스도의 구속 안에서 진짜 자유를 발견할

수 있는 정신을 함양해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학문과 기술에 관한 지식 그 자체는 인간이 그 기술을 사용해 참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도덕적 판단을 내려 주지 못 한다”며 “인문학의 근본 관심사는 인간이기에, 인간은 만물의 중심에 있다는 관점을 견지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현실적 행복과 직결된다”고 했다.

가령 그는 “‘인간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우주의 의미는 무엇인가?’ ‘선악은 무엇인가?’ ‘인간의 종말은 어디인가?’ ‘시간과 공간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인문학이 던져준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인문학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현실과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을 시작 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인문학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 속에서 과도한 소비로 인한 말초자족문화의 과잉, 그로 인한 관계의 단절, 돈에 대한 맹목적 추구, 거시서 비롯된 자아상의 상실 같은 현대적 질병을 어느 정도 경감시켜 줄 수 있다”며 “그러나 온전한 치유에 이르지는 못 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인문학이 신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필터링 돼 이용해야 한다”

며 “인문학이 궁중의 시녀들을 다스리며 상궁이라면, 신학은 상궁의 삽김을 받으며 상궁과 모든 궁녀들을 다스리는 여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모든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며 “모든 지식은 사물과 관련되며,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물은 창조된 것”이라고 전했다.

왜냐면 그는 “그 사물은 시간과 공간, 혹은 인간의 상상력 안에 존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의 지성의 관념으로 존재했기 때문”이라며 “자연과학이나 인문학은 신학을 대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신앙으로 발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창조 세계에서 연역해 내려오는 기능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인문학은 안에 인간의 궁극적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 인문학적 사유의 훈련이 되어 있다면 기독교를 통해 발견하는 진리를 그에게 더욱 탁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그는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한 말을 인용했다. 내용은 이렇다.

“제가 먼저 당신의 성경을 익숙히 알아서 친숙하게 됨으로서 그 달콤함을 맛본 후에 저런 다른 책들을 읽게 되었다면,

아마 그것들은 저의 견고한 경건의 뿌리를 느슨하게 끊어놓았을 것입니다. 비록

이미 흡수한 건실한 사랑의 감정이 남아

있었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 책들만 가지고

연구해도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때와

똑같은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어 그는 “인문학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신학을 공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지식의 깊이와 사상의 전제성에 있어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목회자에게 있어 인문학적 교양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으로 인간들을 이해하고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목회자들은 이미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설교하도록 부른 받은 사람들은 아닌, 그렇지 못한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 있으나 진리에 회의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심지어 불신자에게도 설교하도록 부른 받은 사람”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인문학은 인류역사의 영향을 끼친 위대한 문사들의 작품들을 통해 사유방식을 배우는 학문”이라며 “나아가 보편인류가 추구해 온 정신적 가치와 사고방식에 대한 지식을 꼭넓게 해준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인문학은 사유를 훈련하고, 삶의 존재 방식에 질문하는 훈련을 더하여 기독교 신앙이 질실히 요구하는 삶의 의미와 관련된 해답을 불신자에게 던져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인문학은 목회와 신학에 풍성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노형구 기자

숭실대, 평양 캠퍼스 재건 비전 선포

개교 121주년 기념예배

숭실대학교(총장 황준성)는 오늘 10월 10일 한경직기념관 대예배실에서 동문, 교직원, 학생 등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교 121주년 기념예배’를 개최했다.

김회권 교목실장의 인도로 ▶기독교(이역 실 법인이나) ▶성경봉독(조문수 교수협의회장) ▶찬양(웨스트민스터합창단) ▶설교(영락교회 김운성 목사) ▶축하연주(승실 금관 앙상블) ▶기념사(황준성 총장) ▶근속자 표창(황준성 총장) ▶축하인사(신영복 총동문회장) ▶축도(김운성 목사)가 진행됐다.

김운성 목사는 창세기 2장 7절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흙에서 생명으로’라는 설교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학교

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갈고할 수 있는 것이며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곳”이라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숭실대가 ‘죽어있는 흙’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일으키는 생생의 사역에 동참하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준성 총장은 기념사에서 “개교 121년 숭실의 역사는 이 땅에 근대교육의 새 길을 넓 대한민국 대학의 역사이고 부활의 생명을 지닌 기독 신앙의 역사이며 그리고 감사의 역사”라며 “역사로 미래를 여는 대학, 숭실대학교는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시점에 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평양 숭실 재건은 이론과 담론

이 아니라 머지않아 우리 앞에 대두될 현실이다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숭실이 통일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통일선도대학으로서 평양 숭실 재건에 앞장서고 새로운 통일 한국을 만들어나가는 일에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황 총장은 “1969년 국내 최초로 전산학과를 개설하고 한국의 IT 교육을 이끈 숭실대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서 특성화 교육을 통해 명실상부한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으로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창업 분야에서도 ‘스타트업 펌프 벤처 스튜디오’를 개관해 학생들이 마음껏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했으며 앞으로 숭실대는 ‘한국의 벤스 컬리지’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대학, 숭실이 개교 121주년을 맞이한 것은 함께 기도하며 성원해주시던 숭실 가족들의 사랑 덕분”이라며 “앞으로 학교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함께·같이 힘차게 동행해 달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기념예배 후 평양숭실 재건위원회 현관식도 열렸으며 숭실대는 1897년 선교사 윌리엄 베어드 박사가 평



양에 설립한 ‘숭실학당’을 시작으로 1906년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교육을 시행하고 1908년 대한제국으로부터 대학 인가를 받았다. 1938년 국내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자진 폐교를 단행함으로써 민족적 자존심과 신양적 절개를 지켰다. 1954년 서울에서 재건, 올해로 121주년을 맞이했다. 조은식 기자

한신대학교, 제3회 종교와과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21세기 과정신학의 거장인 존 캠(John B. Cobb) 교수 특강

한신대학교(총장 연규홍) 종교와과학 센터(CRS, 센터장 전철)가 지난 10일(수) 오전 11시 30분 서울캠퍼스 예배당에서 제3회 ‘생태문명의 전환을 위한 종교와 과학의 대화’라는 주제로 종교와과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신대 연규홍 총장의 인사말, 환영의 음악, 강금실(포럼 지구와 사람' 대표)의 격려사,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존 캠(John B. Cobb) 교수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한신대 연규홍 총장은 “제3회 종교와 과학 국제학술대회를 한신대 서울캠퍼스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현대신학과 과정신학의 대표적인 선구자이자 21세기 신학의 최고 석학이신 존 캠

교수님을 모셔서 생태문명과 종교와 과학에 대한 귀한 강연을 들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 캠(John B. Cobb) 교수는 “종교단체가 과학 연구를 조직하고 그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번 주제와 같이 생태문명의 전환을 위한 종교와 과학의 대화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캠퍼스 종강실에서는 한신대학교 종교와과학 센터(CRS)와 클레어몬트 과정사상연구소(CPS)의 국제연구협력과 공동연구 등 새로운 출발을 위한 협약식이 진행됐다.

조은식 기자

www.kogas.or.kr

한국가스공사

바르게 딘는 안전의 첫걸음

굴착신고 및 사전협의는 굴착공사의 처음입니다

굴착공사에 의한 배관 손상사고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굴착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굴착신고는 필수입니다.

굴착공사 신고절차

굴착공사계획 신고 ◉ 접수번호 발급 ◉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 굴착공사개시 통보 ◉ 굴착공사 시행

*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기독교인들을 더 가혹하게 박해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 민족주의가 더 거세지면서 현지 기독교인들이 예배 금지, 제포, 고문 같은 핍박을 당하고 있다. 한국 VOM(Voice of the Martyrs Korea)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기독교인들은 버스나 기차 같은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읽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 말하면 체포된다고 한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일부 기독교인들은 교회 등록이 취소되는 바람에 불법으로 가정에서 모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은 경찰에 금습을 당해, 체포당하고, 때 마다 벌금을 물기 쉽습니다.”(한국VOM 폴리 현숙 대표)

전 세계 모든 곳의 핍박받는 기독교인과 함께 일하는 한국 VOM의 중앙아시아 동역자들은 자신을 나라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한다.

지난 8월, 타지키스탄 비밀경찰은 기독교 문서를 배포했다는 혐의로 기독교인

열 명을 체포, 개인당 한화로 백십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대부분의 타지키스탄 국민 6개월 차 월급보다 많은 액수이다.

카자흐스탄에서 종교를 새로 조사한 결과, 2017년에 종교 집회를 열거나 기독교 문서를 배포 및 기타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263명에 달했다. 카자흐스탄 행정 법 9장 489조는 “등록되지 않거나, 중단되었거나, 금지된 종교 단체와 사회 조직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재판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권한을 주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종종 위협 거리로 간주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당국자들이 목사와 신자들 집을 수색하여 물건들을 압수해갔다. 이 나라에서는 함께 기도하거나 성경을 공부하는 것

같은 일상적 기독교 활동을 불법 행위로 간주하기도 한다.

한국 VOM의 카자흐스탄 동역자 가운데 장로교 목사가 있는데,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9개월 수감되어 있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둘로 죄수 100여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카자흐스탄의 키질로르다(Kyzylorda) 지역에서는 성난 어떤 부부가(할머니도 함께) 한 가정교회 목사를 찾아와, 부모의 히락 없이 아이들을 예배에 참석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며 항의했다.

그 부부는 경찰을 데려왔고 경찰은 그 가정교회를 수색하고 활영했다. 그런 다음에 경찰은 모든 성도에게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쓰게 했다. 경찰은 억지로 가정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님지 혹은 어떤 종교 서적을 읽은 적이 있는지 교인들 각 사람에게 물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들이 납치되어 무슬림과 결혼했다.

타지키스탄의 경우, 공식적인 예배 장소 없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는 금지이다. 은밀하게 예배드리다가 불잡히면, 심문을 당하고 무거운 벌금을 끝낸다.

우즈베키스탄은 교회가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로 정해놓았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1999년부터 교회를 허가해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기독교인의 전화를 몰래 엿듣고, 기독교인의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교회 예배를 감시한다.

현숙 폴리 대표는, 무슬림에서 회심한 기독교인들이 국가에서 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에서도 핍박받는다고 설명한다. 타지키스탄에서 일하는 한국 VOM의 동역자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 된 심대 소년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소년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식구들은 소년을 집에 가두고 때렸다.

“식구들은 소년을 몇 개월 동안 차운 바닥에 눌러놓았고, 그 아이가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중앙아시아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 한국VOM 제공

우리 형제자매들에 대한 핍박이 커질수록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도 커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 한 군데가 고통을 당하면 전체가 아픔을 느끼니까요.”(VOM 동역자)
한편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에 관하여 더 알고 싶으면 www.vomkorea.com를 방문하면 된다. 해당 사이트에서 ‘기도후원 - 기독교 박해 국가 정보’로 들어오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세계 68개 국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홍은혜 기자

연세대, 제18회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 개최

문누가, 신인환, 이상훈 선교사 수상자로 선정



제18회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을 마치고. © 연세대 제공

연세대학교(총장 김용학) 언더우드기념사업회는 지난 12일 오후 3시 연세대 루스캐슬 예술실에서 제18회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언더우드 선교상은 연세대학교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정신을 기리고자 2001년 제정한 상으로, 세계 오지에서 혁신적으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를 선정해 수여한다. 올해 수상자로는 문누가 선교사와 신인환 선교사, 이상훈 선교사가 선정됐다.

문누가 선교사는 중앙아시아 K국에서

청년대학생 제자훈련, 가정교회 사역, 치과 의료교육 및 현지 자립형 치과병원들을 설립하며 24년간 선교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전문성을 살린 의료선교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현대 선교의 방향성을 제시해나가고 있는데, 지난 18년간 30여 명의 치과의사 강사요원을 배출, 이들을 통해 연 3,000명에 달하는 인원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신인환 선교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로 손꼽히는 아프리카 브룬디지의 작은 시골마을에 한센인들을 위한 수술 병원 센터를 설립했다. 아내인 신은남 선교사와 함께 한센인들을 치료하는 한편 가난과 질병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이상훈 선교사는 24년간 르완다에서

개신교대학 개발학과 강의, 의료활동, 난민 구호활동을 펼쳐왔다. 르완다뿐 아니라 우간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게까지 의료 및 식량 물자를 보급하고 있으며 전후 지역 복구 및 지역 개발, 주택 건축, 아동 후원, 전쟁미호모 직업훈련과 삼답 치료 등 다방면에 걸친 사역을 펼치고 있다. 또한 현재 르완다 최초의 여성대학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선교, 지역에 맞는 선교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문누가 선교사는 중앙아시아 K국에서

2018 몽골 한인선교사대회 개최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선교의 미래 발견한 귀한 시간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 ‘2018 몽골 한인선교사대회’가 몽골 한인선교사회와 KGMN(Kwaglim Global Ministry Network) 주관으로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됐다. 모든 행사는 광림교회에서 후원하였으며 ‘주가 일 하시네’(사 46:11)라는 주제로 몽골 전역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80가정 약 250여명의 선교사 가족이 참가하였다. 이번 선교사대회는 김정석 담임목사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몽골선교의 미래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는 세 번의 집회를 통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함과 친밀감이 있어야 함”을 전하며, “어려운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젊은 양에 대한 열정과 복음의 열정으로 성령에 순종하는 선교”를 강조했다. 또 나눠

주는 목회를 통해 성과주의가 아닌, 순수한 복음의 열정으로 현지 목회자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하자고 다짐하는 시간이 됐다. 선교사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광림교회 교육국에서 준비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영아유치부, 어린이부, 학생부로 나눠 각 부서별 활동이 이뤄졌다.

둘째 날 저녁에는 송정미 사모의 찬양 콘서트가 이어졌다. 약 두 시간에 걸친 찬양을 통해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치유의 시간이었다.

이번 대회는 광림의료선교위원회가 동행하여 선교사들의 육적인 부문까지 돌

보고 섬기는 특별한 기회가 됐다. 광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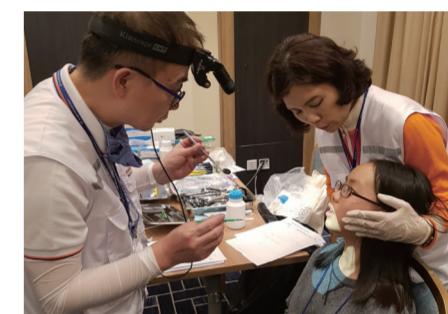
의료선교위원회 소속 의사(내과,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한방, 피부과)와 간호사 및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20여 명의

의료선교위원회들은 늦은 시간까지 선교사 가족을 진료하고 치료했다.

선교사들은 광림교회의 섬김과 사랑에 감사하며, 그동안 선교사역으로 인해 지치고 상한 영과 육이 모두 치유 받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했다.

또한, 남선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어르비트 선교센터’ 부지를 방문하여 중보 기도했다. 이 지역은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고 있어 지역사회를 위해 선교센터 역할이 더욱 기대되는 곳이다. 얼마 전 토지사용권이 허가되어 설계기간을 거쳐 내년이면 건축 시작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는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대사와 면담하기도 했다. 대사는 “몽골은 가장 빠른 경제 성장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최근 IMF 구제 금융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선교사역이 몽골 땅에 사랑과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기를 요청했다.



광림의료선교위원회 위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선교사 가족을 진료하고 돌봐줬다. © 광림교회

근 IMF 구제 금융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선교사역이 몽골 땅에 사랑과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기를 요청했다.

몽골 한인선교사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교파를 초월해 선교사들이 연합하는 시간이 되었고, 가족과 함께 여유와 힘을 찾게 되었다며,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전했다.

홍은혜 기자

구세군, 태풍 콜레이 피해 지역 찾아 긴급구호

한국구세군(사령관 김필수)은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태풍 ‘콜레이’로 인해 수해 피해를 입은 영덕·강구한 일대를 찾아 긴급구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5~6일 사이 태풍 ‘콜레이’

의 직격탄을 맞은 경북 영덕군은 주택, 도로가 침수되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작물 침수를 당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구세군은 10월 11일, 사랑의 밥차와 함께 가장 많은 수해 피해가 생긴 영덕 강구한을 찾아 무료 급식 활동을 펼치며 긴급구호를 진행했다.

구세군 경북지방(참령 조학정), 구세군 자선베푸(참령 곽창희), 구세군사회복지부(참령 박희범) 및 경상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가 함께 한 이번 급식 나눔에서는 구세군 자원봉사자 40여명이 참여하여 수해 피해 이재민을 도왔다.

구세군은 태풍 ‘콜레이’로 인해 삶의

사의 인재를 전했다.

한편 구세군은 침수 피해 가정을 직접 찾아가 식사를 전하고, 영해를 인근 수해주민 60여 가구에 침구 세트를 전달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긴급구호 급식나눔은 12일 점심 무렵까지 이어졌으며 이후 마무리 됐다.

이나래 기자

2018 뉴베리 대상 수상작!

출간 즉시 알라딘, 예스24, 교보문고, 인터파크 베스트셀러!!

일상 생활 속에서 벌어진 단 하루의 이야기!

못된 골목대장 ‘쳇’이 소심한 ‘버질’에게 끔직한 장난을 치던 그날,

네 아이의 우주가 서로 얹히기 시작했다!

네 아이가 겪은 일을 그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 연합 단체의 하나 됨은 시대적 요청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민석 목사

11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관에서는 한국사회발전연구원 주관으로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하나님 됨을 위한 방법론 및 대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교회는 일제시대 강압에 의하여,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참배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문제로 비롯된, 신사참배 반대파와 이를 결의하여 참배한 것에 따른 파열음이 분열의 단초가 되었다. 결국 1951년 장로교회는 신사참배 반대 입장의 고신파를 정죄하므로, 고신파가 분리되게 되었다.

또 신학적인 문제로, 1953년 예장과 기장으로 분열하였고, 1959년에는 WCC(세계교회협의회) 가입 문제로, 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으로 갈라서게 된다. 그 이후

예장 개혁 교단 등 여러 교단들의 분열이 일어나면서, 지금은 상당수의 교단들로 나누어져 있다.

거기에다 연합 단체들마저 분열하여, 지금은 이것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기독교는 1918년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인 조선에 수교장관협회(NCCK의 전신)가 조직되어, 1980년까지 단독 활동을 하다가, 그 해에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한 원로들의 모임으로 시작한 것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CCK, 이하 한기총)가 된다.

이렇게 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양 체제로 200여년을 활동하다가 2012년 한기총의 부정선거 등을 이유로, 한국교회연합(CCIK-이하 한기연)이 분립하게 된다. 또 이 두 단체(한기총, 한기연)의 일치를 위한 교단장협의회의 노력이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듯하다가, 여의치 못하자, 2017년 한국교회총연합회가 만들어지므로, 한국교회는 4개의 연합 단체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이를 보면서,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사장 조일래 목사)에서는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도로회에는 4명의 발제자와 4명의 토론자를 세웠다. 사회에는 지현은 목사(남북나눔운동 이사장)가 맡았다. 발제에서는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공동 대표)는 ‘우리는 다른 것보다 같은 것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하며, 또한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명령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한국교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과 한국교회 역사를 지우려는 모든 움직임에 대하여 하나 된 모습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물리적으로 어려운 단일 기구로의 결합보다는 이슈와 주제에 따른 하나 됨을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발제2의 김동원 목사(기장 전 총회장)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고 총괄하는 큰 지붕(연합체)을 만들고 모든 문제들이 이곳을 통하여 결정되며, 안티 기독교 등에 대한 대처 및 내적인 성찰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다. 또 교회 지도자들이 편협하고 오만한 자존심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조하였다.

발제3의 조일래 목사(기장 전 총회장, 한국사회발전연구원 이사장)는 자신이 한기연 대표회장과 기성 총회장을 하면서, 한국교회 하나 되지 못함을 아프게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한국교회 하나 됨을 위한 연합 기구의 유통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예시하였다.

발제4의 이성구 목사(한국기독교목회자 협의회 대표회장)는 연합의 긴급성을 강조하면서, 연합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목회자들이 신전의식(神前意識)이 있어야 하고, 공교회 중심의 원칙이 있어야 하고, 한국교회 원로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원로회의 장원, 연합단체의 대표를 의장으로 호칭하여, 명예를 지워야 하고, 조직 중심이 아니라, 한국교회 인프라를 접할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진호 목사(기장 총무)는 ‘한국교회 하나 됨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면 되고, 회개운동과 하나님과 교단 중심으로 시대적 요청과 국가에 대한 기독교의 대표성을 위하여, 무조건 하나 됨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변창배 목사(예장 통합 사무총장)는

‘한국교회에 복음 전래 이후 한반도에서는 1950년까지, 60년 사이에 7번의 큰 전쟁이 있었으나, 지금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거대단문으로, 연합 기관 통합이 중심이 아니고, 각 교단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고 하였다.

이재천 목사(기장 총무)는 ‘빅 텐트를 친다고 정말로 하나가 되는 것인가?’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독교가 쇠퇴기에는 통합을 말하고, 부흥기에는 분열이 있었고, 하면서, 연합기관과 센터가 아닌,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되면 된다고 하였다.

최우식 목사(예장 합동 총무)는 ‘목사는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한 답을 준다’고 전제하고, 지도자들은 왜 한국교회에 답을 놓 주는가? 라면서 모든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이므로,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면 (연합)된다고 하였다.

이날 토론 전에는 김요셉 목사(한기연 대표회장)의 개회사와 김영진 장로(전 농림부장관)의 환영사, 그리고 신상범 목사(한교총 통합주진위원회)의 축사가 있었다. 세분은 공히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여 부끄럽다. 온전히 하나 되어, 교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야 하고, 사

회 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한국교회언론회 이억주 목사의 자료에 보면, 지난 2014년 일선의 기자들에게 질의한 적이 있는데, ‘한국교회연합 단체 분열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91.9%가 ‘지도자들의 명예와 욕심, 공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시도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한국교회 연합에 가장 걸림돌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64.9%가 ‘지도자들이 이 교회와 명예에 대한 욕심을 벼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연합 단체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는 질문에 ‘한국교회 대정부, 대사회 참구역할’과 ‘대사회 봉사 및 선교를 위한 연합체가 되어야 한다’에, 각각 복수로 응답한 것이 67.6%를 차지하였다.

한국교회 연합은 시대적 당위성이 점점 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다면, 이는 한국교회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더욱이 교단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연합단체의 하나 됨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바람과 시대적/역사적 요청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위현·위법적 NAP 독소조항 삭제하고, ‘가짜뉴스 프레임’ 법무부 장관 사퇴를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300개 단체 연합)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성명

양성평등 이념의 현법과 법률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편향된 단체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퇴!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수립하면서 2017년 10월에 만들어 공청회까지 가졌던 초안을 아무런

설명이 없이 폐기하고, 각 정부 부처가 주권한 단체는 배제한 체, 법무부가 소위 코드가 맞는 단체만을 참여시켜, 문자부터 내용까지 대폭 수정된 NAP를 새롭게 수립하였다. 이렇게 수정된 NAP는 당연히 공청회를 다시 가져야 할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도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상 20일 이상 공개해야 하는 것을 불과 6일(주말을 제외하면 4일)만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받

았다.

NAP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이념의 현행헌법과 법률을 정면 도전하는 성평등 정책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국감을 통해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독소조항들은 당연히 삭제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주도적

으로 수립해온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한국 기독교를 혐오집단, 적폐세력 등으로 규정하며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었다. 최근 한겨레신문의 가짜뉴스 논란 가운데 성평등 정책을 강력히 추진

해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종교단체를 가짜뉴스의 생산자로 노골적으로 지목하였다. 또 가짜뉴스 프레임 씨우려를 통해 반대 의견에 재갈을 물려보면서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하여 심히 괴롭힌 인

식과 태도를 가진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황희석 인권국장은 즉각 사퇴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양성평등 기반의 현행헌법과 법률을 정면 위반하는 성평등 이념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의 제개정과 정책 시행을 즉각 포기하라.

둘째, 한국 기독교를 혐오집단, 적폐세력 등으로 규정하며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과 종교단체를 가짜뉴스의 생산자로 지목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셋째, 정부와 민주당은 가정을 해체하고 윤리도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성평등 이념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의 제개정과 정책 시행을 즉각 포기하라.

넷째, 광우병과 천암암 등 가짜뉴스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온 정부와 민주당은 성평등 이념을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려는 사악한 의도를 포기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

다섯째, 정부와 민주당은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재갈을 채워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면, 이는 종교 단압으로서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여섯째, 최근 정부와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성평등을 강력히 반대하는 한국 기독교를 혐오집단과 적폐세력으로 몰기 위한 것임에,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연요한 목사는 송실태, 송의여대 교목실장과 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장을 역임하였다. 최근 저서로 ‘사순절의 영성’, ‘부활 성령강림’ 등이 있다.

폭포수처럼 굴러 흐르는

연요한 목사의 ‘아침을 여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번성하고 풍요롭게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며 하옵소서. 풍부한 수량으로 감사의 물줄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겨울비 뒤에 펼칠 넘쳐흐르는 고향의 개울물을 생각합니다. 여름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 가뭄에도 쉼 없이 흐르는 강물을 소망합니다. 어찌 교만한 자들이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있

습니까?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를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 하나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떨리는 마음으로 성전을 봅니다. 주님 앞에 꽂아 옆드리오니 주님의 공의로 인도해 주옵소서.

제 앞에 주의 길을 환하게 열어 주옵

소서. 사리지듯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날입니다. 경제적 번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균형이 깊은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엘리트들은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온갖 특권과 권력을 독점하여 약자들을 좌취합니다. 노동력을 펼취하며 사회 정의도 무너져서 연약한 자들이 보호받지 못합니다. 주님 외에 어느 심판단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날인데 어찌 아둡고 빛이라고는 찾을 수 없습니까? 김감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습니다. 정직한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참 정의가 강물 같이 흘러 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

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거짓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이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발행인 김광수 일반판국장 장세규 교계판국장 김규진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우편번호 1005-301-884992

미주 기독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집중력과 성취감을 높여주는 스크래치 북의 매력에 빠져 보세요!



나이트 뷰 인 스크래치 북
야경이 아름다운 세계의 도시

マイ フェアリーテイル イン スクラッチ ブック
그림이 아름다운 동화

보테나컬 가든 인 스크래치 북
마음에 위안을 주는 꽃과 시

더 조디악 인 스크래치 북
나와 당신의 운명, 별자리

페키지 구성
도안 12장 + 스크래치 전용 펜

전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세요. | 문의 전화 02-724-7851 Style™